

일본지역

■ 최근 일본 경제의 회복 요인과 배경

□ 최근 일본 경제 회복세는 기업 및 수출 부문이 주도

- '03 년 4/4 분기 기준 일본의 GDP 는 전분기대비 실질 1.7%, 연율 환산 6.4% 증가로 당초 전망치를 크게 상회, 연율 환산기준으로 13 년 반만에 가장 높은 성장율을 실현하였음.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1 월의 월례 경제 보고에서 “경기는 착실하게 회복되고 있다”면서 경기 회복을 공식 선언하기에 이르렀음.
- 근년의 일본 경제동향을 살펴보면, 경제성장률(실질 GDP 성장율기준)은 '01 년도 - 1.2%에서 '02 년도에는 1.2%로 플러스 성장세를 시현하였으며 '03 년도에는 3%가까운 높은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 같은 일본경제의 회복세는 수출부문의 호조(지역별로는 중국, 품목별로는 디지털제품 등)와 더불어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한 설비투자 확대(同 5.1% 증가) 등 기업부문의 신장세가 견인을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최대의 특징임.
- 해외경제의 회복기조를 배경으로 수출은 同 4.2% 증가, GDP 를 0.5%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품목별로는 전자부품, 통신기기, 액정 TV, 자동차 등이 호조를 보였음. 지역별로는 고성장을 지속중인 중국에의 수출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음. '03 년중 대중국 수출은 전년대비 33%의 급증세를 보였음.
- 대중국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철강, 화학제품 등 소재 외에 건설기계 등의 수출도 늘어나고 있고 철강의 대중국 수출은 '03 년중 643 만톤으로 2 년 연속 6 백만톤대를 돌파하였음. 이밖에도 건재, 자동차의 차체에 사용되는 냉연강판 등의 고가 제품은 물론 플라스틱 등 화학제품의 수출도 크게 늘어나고 있음.
- 그러나 GDP 의 60%를 점하는 개인소비는 '03 년 4/4 분기중 박형 TV 등의 인기에 힘입어 전분기대비 0.8% 증가하였으나 기업 및 수출부문에 비해서는 회복세가 미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주된 요인은 고용, 소득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기업들은 수익성이 회복세임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을 계속 중이고 임금 억제 자세를 굽히지 않고 있는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전반적으로 기업들은 고용은 다소 늘릴 수 있다하더라도 임금을 올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입장(특히 금년도 춘투시 경영자측은 임금 억제 자세를 견지)을 보이고 있음.
- 이밖에도 대기업 등 일부 부문이 주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이나 지방경제에 까지 회복세가 파급되지 않고 있는 것도 본격적인 회복 기대감을 희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04 년중 2%후반대의 경제성장 가능시

- 엔고(3 월말 한때 달러당 103 엔대까지 엔고 급진전)가 미칠 마이너스의 영향(특히 수출면), 원자재 및 소재난,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는 디플레이션 현상('03 년 4/4 분기중 GDP 디플레이터 전년동기대비 2.6% 하락) 등이 악재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사실임.
- 그러나 전반적인 해외경제의 성장세를 배경으로 최근의 경기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는 수출 및 기업부문의 신장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 같은 경기 회복세가 개인소비부문에다 파급되면서 경기 회복세를 확산시킬 것으로 보여 일본경제는 '04 년중 대략 2%후반대의 경제성장을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주요 민간연구기관의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

연구기관명	연구원 성명 및 직책	실질 GDP 성장률	
		2003 년도	2004 년도
미즈호리서치	이즈카 나오미 선임연구원,경제조사부	2.9	2.6
미즈비시종합연구소	고토 야스오 선임연구원 정책.경제연구센터	2.9	2.0
다이와종합연구소	토리코시 다츠야 선임연구원 금리외환조사부	2.8	2.2
노무라종합연구소	하기하라 요우 선임연구원 경제연구부장겸	2.8	2.7
제일생명경제연구소	시마미나 요시키요 선임연구원 경제조사부	2.8	1.8
UFJ 종합연구소	시카노 다츠부미 선임연구원	3.0	3.1

(자료원 : 도쿄무역관 조사)

* 주 : 1. 조사시점은 4 월 13 일 현재, 2. 회계연도 기준(4.1 ~ 3.31)

(문의처 : 도쿄무역관 신태철 stc69@kotra.or.kr)